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 (27) 수레바퀴는 있는데 수레는 없단 말이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메난드로스 왕은 물었다. “당신은 누구 신가요? 스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가세나라고 부릅니다. 대왕이시여. 나의 동료들은 그렇게들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부모님이 내게 준 이름일 뿐, 나가세나든, 수라세나든, 비라세나든, 시하세나든, 그런 것들은 다만 ‘명칭’이고, ‘관념’이고 ‘습관’으로서 다만 ‘이름’일 뿐입니다. 거기 어떤 ‘사람’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자 메난드로스 왕은 놀라서 이렇게 외쳤다. “들어보시오, 여러분, 500의 그리스인과 8만의 승려들이여. 지금 이 나가세나는 지금 제게, ‘자신은 실제로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가세나에게 말했다.

“만일, 존경하는 나가세나시여, 실제 어떤 ‘사람’도 없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이 필요로 하는 옷이며 음식, 주지며 약 따위를 주는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쓰고 소비하는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재물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

며, 선정을 닦는 사람은 또 누구며, 네 가지 성스러운 길과 그 과실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리하여 니르바나에 이르는 사람은 또 누구란 말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며, 부적절한 성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며, 거짓말을 하고, 술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섯 가지 죽을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만일 거기 ‘사람’이 없다면, 공덕도 없고 죄악도 없을 것이요, 그 공덕을 짓고 죄악을 저지르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배후에 어떤 행위자도 없을 것입니다. 선하고 악한 행위의 과보도 없을 것이며, 그에 대한 보상과 처벌도 없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당신을 죽인다 해도, 오, 존경하는 나가세나여, 그는 어떤 살인도 저지르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대 자신, 존경하는 나가세나여, 당신은 진정한 교사나 지도자, 정식 승려로서 서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오오이 아니다 메난드로스 왕은 다시 이렇게 말했다. “그럼, 어디 틀어놓시다. 당신의 동료들은

당신을 습관적으로 ‘나가세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혹시 머리카락이 나가세나 인가요?”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아니면, 몸의 터럭이 나가세나인가요?”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아니면, 손톱, 이빨, 피부, 근육, 힘줄, 뼈, 골수, 신장, 간, 지라, 폐, 창자, 복막, 위, 췌장, 쓸개즙, 고름, 지방, 눈물, 땀, 침, 콧물, 연골, 오줌, 골 속의 뇌, 이런 것들이 나가세나입니까?”

“존자여, 여러 질문을 했지만, 저는 나가세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나가세나’는 단순한 소리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럼 여기 내 앞에 있는 나가세나는 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은 제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정 나가세나는 없었습니다.”

수레바퀴는 있는데 수레는 없단 말이나 의혹과 혼돈에 빠진 메난드로스 왕에게 존자 나가세나는 영동한 이야기를 꺼냈다.

“결어오지 않았습니까. 수레를 타고 왔습니다.”

“수레를 타고 오셨더니, 대왕이시여, 그럼 ‘수레’가 무엇인지 제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골대’가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존자시여.”

“그럼, ‘바퀴축’이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존자시여.”

“그럼, 바퀴가, 혹은 바퀴살이, 깃대, 밧장, 멍에 등등이 수레입니까?”

“들어보시오, 여러분, 500의 그리스인과 80,000의 승려들이여. 지금 지금 이 메난드로스 왕께서는 분명 자신이 수레를 타고 여기 오셨다고 말씀하셨소. 그렇지만, 수레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자, 그 존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500의 그리스인들이 나가세나를 찬탄하며 메난드로스 왕에게 주문했다. “대왕께서는 이제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나가세나여, 거짓을 말할 것이 아닙니다. 골대와 축, 바퀴와 바퀴살, 깃대와 밧장, 멍에 등속에 의존해서, 여기 ‘수레’라는 명칭이, 관념이, 습관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름뿐인 ‘수레’가...”

“대왕께서는 수레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나가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서른 두 부분과 물질, 감정, 지각, 의지, 의식의 오오에 의지해서 ‘나가세나’라는 명칭이, 관념이, 습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덕적 견지에서, 이 ‘사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왕이시여, 바지라라는 비구니가 붓다 앞에서 이런 시를 노래했습니다.

마치, 부분이 바로 모일 때, ‘수레’라는 이름이 생겨나듯이 다섯 가지 요소(五蘊)가 존재하는 곳에 ‘어떤 것’이라 부르는 관습이 있네.

“존자 나가세나여, 정말 훌륭합니다. 내 질문에 정말로 훌륭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붓다께서 여기 계셨다면, 당신의 대답을 인정하시고 또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향수 냄새 가득한데 미인은 간 데 없다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그렇다면 존자여, ‘물질(色)’이 나가세나입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그럼, ‘감정(受)’이 나가세나입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그럼, ‘의지(行)’가 나가세나입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그럼, ‘의식(識)’이 나가세나입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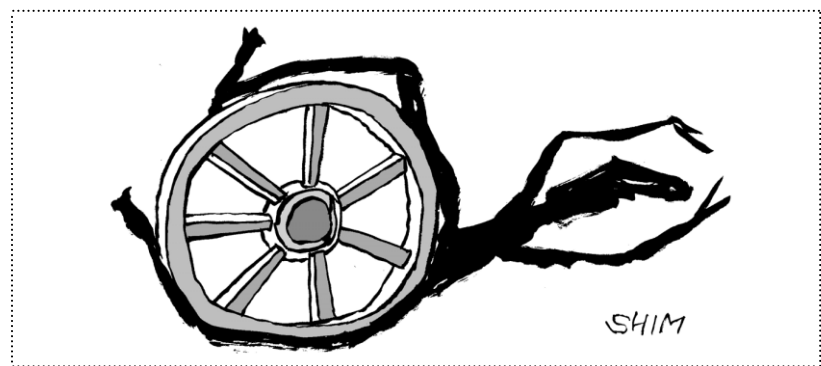
“그렇다면, 앞의 다섯 데미(五蘊)의 결합을 나가세나라 합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그렇다면, 이 오온 밖에 따로 나가세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메난드로스 왕은 곤혹스럽게 말했다.



“대왕이시여, 당신은 부드럽고 세련된 환경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 몸에 맨발로 거친 바닥과 뜨거운 모래를 밟는다고 합니다. 그대의 연약한 발이 험한 가시밭과 자갈 길 위를 걷는다면 발은 상처를 입고, 몸은 피곤해지며, 정신은 손상되어, 걸음마다 아프고 피로로 느낌을 갖겠지요... 그런데 지금 대왕이시여, 당신은 이곳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수레를 타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존자시여.”

“대왕이시여, 여러 질문을 했지만, 저는 ‘수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수레’는 단순한 소리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럼 무엇이 진짜 수레입니까? 대왕께서는 제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정 수레는 없었습니다... 대왕께서는 전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십니다. 대체 누가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는 말했다.

주장사파라...

50 진묵 대사



조태호

상운암 스님을 훔쳐두고 대중스님들이 탄발로 갔다. 대현사에서 가끔 장날이면 장보러 곧장간다. 술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정로 돌아와 오늘은 장을 잘못왔다. 어느날은 장을 잘보고 왔다. 어떤 사물에도 흔들리지 않았거든...

어느 관청의 아전이 관물을 훔치다가 스님에게 들킨다. 관청에도 돈 갖다 두고. 김삿갓도 놀란다.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은 자리 산은 베개 삼고. 달빛과 구름은 병풍삼고... 바다는 술삼아.

나한에게 기도 머지않아 좋은일이 생길것이니... 아니나 다를까 크게 취해 춤을추니 옷소매가 곤륜산에 걸리네... 이거 석가모니 그림자다. 그건 스님 그림자입니다.

제법 관상은 지위에 오르고 도도 번다. 스님 그때 아전은 어떻게 지냈을까? 또 뇌물 먹다가 옥에 있다 버릇은 무서워... 훔쳐. 너는 나의 가짜만 알고 석가의 진짜는 몰라! 스님 100년뒤 중생은? 서산대사 나라.

진묵(1562-1633)스님: 전북 김제 만경출생. 7세에 전주 봉서사로 출가. 참선과 독경으로 일생을 보냈고 '석가모니의 화신'이라 불렸다. 초의 스님의 <진묵조사유적고>가 전한다.

네티즌 교리문답

'성성적적(惺惺寂寂)'의 의미는?

Q 조사 스님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 '성성적적(惺惺寂寂)'입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삼매와 무슨 관계가 있고, 또 이 말이 들어있는 원문(原文) 혹은 원전(原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P 토출웅공)

A1: <악인보살경> '삼성반월품'에 있습니다. 원문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름지기 참선자는 돌이켜 반조하는 것으로 경계를 대하여야 하고(적적), 늘 깨어 있는 것으로 마음이 동하는 것을 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진 스승인 선사를 만나야 합니다. 깨침이란 무분별의 분별로서 자유자재함이고, 스승이란 학인의 막힌 곳을 터주기 위해 어떤 기특한 지견이라도 말끔히 비우도록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스승은 갖은 방편을 마다않고 상대의 근기에 따라 혹은 세우고 혹은 쓸어버려 추호라도 의지함이 있거나 어긋남이 없도록 엄정하게 가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첫째도 신심이요, 둘째도 신심입니다. 스승에 대한 믿음조차 없다면 누구를 의지하고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해가 선사는 팔을 끊어 스승께 불식신명(不執身命)을 보였고 설봉은 법을 묻기 위해 5,000리 머나먼 길을 끊어놓아 왕복하며 세 번 동산을 찾고 아홉 번 투자산을 찾았다 합니다. 성성적적의 경지를 깨달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tathata)

A2: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란 지(止)와 관(觀)이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선가에서는 바로 성성적적이라 표현합니다. 또 쌍차쌍조(雙此雙照)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고요하고 비추는 그 삼매 속에서 바로 깨닫는 것이지 깨닫기 위해 다시 삼매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삼매에 대한 오해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화두를 들다가 어떤 경계를 만나 갑자기 활연대오 했다고 해서 삼매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뒤에나 삼매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대로 성성적적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된 각안(覺眼)에 다시 삼매에 들고 나니 일이 무슨 필요가 있었습니까? 어묵동정이 그대로 밝게 관해서 집중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물론 삼매 없이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도 삼매를 떠나지 않고 부처님이 활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1		7		8	
		2	9		10
3	11			4	12
			13		
	5	14		15	
				6	

상식퍼즐

1. '창산리○○○야수이 감을 자랑마라' 2. 동요 '반달'에 등장하는 나무 3. 주역의 팔괘와 그물을 처음으로 만든 중국 3황5제 중 한 사람 4. '이 시대', 비슷한 말 당세(當世) 5. 생선은 머리가 짐승은 꼬리부분이 맛있는 말 6. 바다를 막아 경작지로 만들어 놓은 땅.

정답은 26면에

세로 1. 사악함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임 7. 불자가 계를 받음을 일컫는 말 8.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 단위, 매우 짧은 순간 9. 임금님께 올리는 밥상 10. 설렁이 가미되지 않음 11. 고대 그리스어를 일컫는 말 12. 아주 밝은 세상을 일컫는 한자성어 13. 피와 살이란 한자어로 자기가 낳은 자식을 말할 14. 중국 당나라 최고의 시인으로 시성으로 불림 15. 논밭과 논밭 사이.